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 10주년 성과 공유

기념행사-C형간염 퇴치 심포지엄
전문가·관계기관 200여명 참석
전북형 퇴치모델 고도화 집중 논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재조명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6년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감염병 전문 지원조직으로 감염병 감시와 분석, 정책 자문, 교육·홍보 등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해 왔다.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C형간염 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전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돌아보고, 전자자치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전북형 C형간염 퇴치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청과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전국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감염병 대응 정책과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과학적 분석과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지역 방역체계 안정화에 기여하며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어 열린 C형간염 퇴치 심포지엄에서는 전자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북형 C형간염 퇴치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선별검사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미치료자 추적관리 및 치료 연계 등에 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C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적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의 중심인 C형간염 퇴치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 조

성에 힘을 보탤 것이다.
방상윤 전자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10년간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 조

/장정철 기자

한병도 "국힘 자중지란...국조 제대로 되겠다"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
선동 말고 진상규명 집중해야"



한병도 원내대표

직원의 급여도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 현장을 찾은 천준호·전용기·임오경 의원 등이 '빨갱이 나카리'라는 막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상태로 (부실선거)국정조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의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를 핑계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을 선동해서 여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위기 모면만을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1야당 대표가 불법과 음모론을 선동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봉쇄된 체육관에서 장비를 꺼내지 못해 다름사람의 칼을 빌려 출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국가대표와 체육단체

오경 의원 등이 '빨갱이 나카리'라는 막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6.3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최우선 규명하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재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투표용지 인쇄 불량 산정과 실제 공급과정, 선관위의 상황보고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적당히 넘어갈일이 아니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건축 수준으로 선관위 혁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선관위 국조특위 첫 회의... "성역 없는 조사" 한목소리

특위 위원장 국힘 윤상현 의원
여야 간사 윤건영·서범수 선출
활동기간 45일... 책임규명 나서

이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은 간사인 윤 의원과 이혜식·김영배·전용기·김성희·김용만·양부남·이기현·김남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 위원장 및 서 의원과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 뒤.

윤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선출 이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헌법 조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라면서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용 등 구조적 문제를 낳아 과거에 비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며 활동기간은 45일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천연기념물 후계목 보전·증식 '첫발'

전북도-산림청 공동 현장조사
도 천연기념물 19종 관리 추진

군락과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후계목 생산을 위한 증식 재료를 확보했다.

전북도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16일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첫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산림청이 국립세관금수목원 내 조성 중인 '전북 답소정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북지역 천연기념물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산림유전자원을 답소정원에 전시·보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림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천연기념물 증식 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동 연구를 준비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조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안 중계리 팥팥나무

확보된 증식 재료는 유전적 특성을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첫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고향 동백나무를 비롯한 전북지역 천연기념물 수목의 증식 재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총 19종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천연기념물 수목은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산"이라며 "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후계목 생산과 증식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세대에 건강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어름철 자연재난에 맞서 관심-주요-경계-심각의 4단계 비상근무 체계도 가동 중이다. 평상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취약시설물 점검을 이어가고,

태풍 정보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관심 단계부터 사전 대비 활동에 나선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태풍·호우 도로재난 선제 대응 총력

수해대책기간 10월 15일까지 운영
'인명피해 제로화' 시설 예찰 강화

취 재난에 강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난 4월까지 지방도 공사 현장 7개소와 교량 525개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탈면 안전 점검과 배수처리 기능 확보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과 함께 긴급보수도 병행한다. 사업비 약 25억 원을 투입해 포트홀 보수를 비롯해 도로 측구 및 배수로 58개소, 도로표지판 14개소, 도로안전시설 43개

소, 교량 13개소를 정비하고, 지방도 노면 쓰레기 775톤을 수거하는 등 도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인명사고 우려가 큰 지하차도 관리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 도내 23개소 지하차도마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침수 깊이가 5cm에 이르면 곧바로 통행을 막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침수가 급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는 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선 통제, 후 보고' 원칙을 따른다.

지하차도별로 4인 담당자 체계를 운영해 시·군과 읍·면·동, 민간 경찰이 함께 현장 통제와 상황 공유를 맡고 있으며, 진입 차단 시설과 배수펌프, 배전반 등 설비 상태도 살피고 있다. 정읍 수성지하차도와 정읍역지하차도는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 중인 구간으로, 시설을 서둘러 갖춰 통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

도는 지방도 공사현장과 재난취약시설인 급경사지, 교량, 터널, 암거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있다. 곧바로 정비하기 어려운 시설물에는 비닐 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응급대처를 적용하고,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한편 순찰도 늘리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 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제13대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규 임명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민주당 전주시의회 될 것”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김성규 당선인(사진)이 임명됐다.



김성규(효자 2·3·4동) 전주시의원 당선인은 18일 오전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의 추대료 결정됐다. 현재 제13대 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36명 중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은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김 대표는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오며 지난 6·3 지방선거 재선에 성공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 간이다. 제13대 전주시의회 김성규 원내대표는 “더욱 단합해 민생을 살피는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여름철 복합기후재난 종합대책 수립

고령 농업인 보호·기축 피해 예방 전방위 대책 추진

전주시가 여름철 복합적 기후 재난 대비차 농업·축산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18일 여름철 복합 기후 재난 대비 농업재해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상특보 발효 시 현장 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협 등 유관기관과 재해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 예찰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전주지역 저수지·소류지·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

검과 여수로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해 왔다.

시는 향후 폭염특보 발효 시 △낮시간 대 농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1시간마다 휴식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실시 △나홀로 작업 금지 등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축·수산 분야에서 침수 우려 지역 등 재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반을 운영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농업분야 투명성·공공성 강화

농업법인·농지·하천 및 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 농업분야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와 농업 질서 확립 위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업법인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또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합

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으로 시는 농업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거 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관련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질자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정소민 기자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5월말 기준 공무집행방해 92건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할 방침을 강력히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경찰관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총 92건(구속 11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건은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경찰관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유형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6일 편의점에서 술 취해 자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을 갑자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검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의 피의자들은 20~30대로 확인됐으며 사건 피의자 모두 구속됐다. 앞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 정도·흉기사용 여부·과거 신고 이력 및 범죄경력 등 철저히 파악해 구속 여부를 엄정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해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불씨없는 화재 사진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 ‘불씨없는 화재’ 주의 당부

산업시설·창고 고온다습 환경 원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도내 자연발화 화재 분석 결과 총 148건 약 22억 1380만원 재산피해와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발화는 불씨나 전기 스파크 같은 뚜렷한 점화원이 없어도 발열성 물질이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축적되면서 발화점에 도달해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자연발화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자연발화 화재는 산업시설과 창고 등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주거시설에서도 4.1%가 발생해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생활공간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해마다 하반기에 화재 발생 건수가 많다. 전북소방본부는 주요 원인으로 환기 불량과 계절적 기후 조건을 꼽았다. /김영태 기자

다. 최근 몇 년간 하반기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창고 문을 장기간 닫아두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늦더위와 초가을 큰 일교차가 더해지면서 내부에 습기가 쉽게 차는 환경이 형성됐다.

이러한 고온다습하고 밀폐된 조건이 지속되면 기름 찌꺼기, 곡물, 폐기물 등 발열성 물질 내부에 열이 축적돼 자연발화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자연발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드칩, 사료, 곡물, 퇴비, 폐기물 등 발열성 물질을 장기간 적재하지 말고, 적재물 내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고와 작업장은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물질별 적정 보관량과 보관 기간을 정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발화 화재는 발생 초기 평소와 다른 냄새, 연기, 적재물 온도 상승 같은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적재물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적재물을 분리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푸드직매장 전주시 로컬푸드유통 거점

10년 사이 매출 3배 성장 60억원 돌파 도전

전주푸드 직매장은 현재 370여 농가·업체가 직매장에 참여하며 10년 사이 매출 3배 성장을 기록했다. 이로서 전주푸드 직매장은 전주지역

370여 농가 농업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대표 로컬푸드 유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푸드는 지역 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전주푸드 직매장은 기획 생산 체

계를 기반으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민 위한 △계절별 특화 행사와 소비 촉진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푸드 직매장을 중

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푸드는 올해 매출 60억원 달성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합창서사시 ‘훈민정음’ 공연

한글 창제 580주년 기념 합창·교향악·국악·연극 어우러져

전주시립예술단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연합공연인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을 선보인다. 공연은 전주시립합창단 김철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총감독을 맡고,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조민철 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무대에는 전주시립예술단 116명과 광주시립합창단 45명 등 총 161명 출연진이 참여해 웅장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은 국립합창



단 전속작곡가로 활동했던 오병희 작곡

가 작곡 작품이다. 지난 2021년 초연 이후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창작 합창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립예술단은 한글 창제 5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 판포와 효용의 과정을 합창과 오케스트라, 국악,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무대로 풀어낸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세종대왕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고자 했던 뜻을 그려내며, 스물여덟 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담아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어 2부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 백성들의 삶에 스며든 한글의 가치와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정신을 감동적으로 담아낸다. 한편 입장권은 R석 1만원, S석 7000원이며 나루컬처 누리집(www.naruculture.com)으로 예매할 수 있다. 연합공연 ‘훈민정음’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과 27일 오후 3시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하봉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전주완산소방서가 화재없는 마을로 완산구 중인동 하봉마을을 신규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박덕구 서장은 안전마을 지정 행사와 함께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함께 실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고 자율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이번엔 신규 지정된 하봉마을은 55가구 116명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행사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요령 교육 등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하봉마을 55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55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10개를 보급하고 설치를 지원했다. 또 안전복지기금을 활용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세제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화재취약가구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안전 증진에 힘을 보탤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첫 기업 찾아!

새만금개발청은 18일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내 첫 민간 기업인 ㈜하우당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돌입한 입주기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총사업비 433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총 11개 기업이 입주를 추진 중이며, 김 가공기업 6개소, 수산식

품 가공기업 4개소, 냉동·냉장 물류기업 1개소가 약 2,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우당은 지역 수산물을 원료로 밀키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원물 중심의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 생산을 통해 국내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원물 입고부터 가공·포장까지의 전 과정과 수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확인하여 기업 관계자들과 수출 확대 전략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주거취약가구 후원금 전달

전북도내 주거 취약가구 안정 지원에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한다. 18일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오은주 센터장을 만나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 주거생활 안정 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60만원이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주

거복지센터의 ‘주거생활 유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후원금 사용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 일반 가구 대상으로 한 △채납된 임대료 및 주거 관리비 △주거 상향 이사회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주거생활 필수가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신규 선도·혁신기업 워크숍 개최

리더십 배양 및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전북자치도-전북TP 성장사다리 중심축인 신규 선도기업과 혁신기업 전문성 향상에 따른 워크숍이 운영됐다. 18일 이규택 전북TP원장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18~19일 양일간 부안 소재 소노벨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올해 신규 지정 선도 및 혁신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업 실무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리더십 배양,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ESG 경영 대응 및 조직 혁신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JBLC 애로해소센터 전문위원들과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 기업 단장기 경영 애로사항 해소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돌고래 의공 유경진 대표 '성장사다리 기업인 네트워킹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나이스디앤비 우수선 팀장의 'ESG 진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심술년연구소 오성욱 대표의 '하이 퍼포먼스

팀워크(High performance Teamwork)' 강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주도성을 확립하고 실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장 및 지역 부회장이 대거 참석하며 선후배 기업 간의 끈끈한 결속력과 함께 도내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 위한 실질적 네트워크 강화가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 양파농가 소비촉진 '양파사세요'

농협임직원·주부들 '작은소비큰힘' 양파판로 한몫
양파가격 하락에서 오는 양파농가들의 시름 덜기 위한 지원에 전북농협 양파특별할인판매가 한창이다. 양파특별할인판매는 전북도와 함께 마련됐으며 이는 양파가격하락에서 오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함이다. 이에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지난 18일 농협하나로마트 '햇양파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치며 고객들에게 양파를 손수 팔았다. 더불어 농협본부는 양파농가 위한 할인판매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에게 부담 없는 양파 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 지역장터를 활용한 판촉행사 지난 5월 29일부터~6월 19일까지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한 양파 가격 할인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농협주부들 모두는 그간 '찬찬찬 반찬 나눔' 봉사 양파장

남화영 사장 '전북-전남' 오가며 점검 지휘

장마철 대비재생에너지 시설 점검...24시간 상황관리가동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남화영 사장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두 곳 안전점검을 직접 지휘하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했다. 관련해 남 사장은 △장마철 대비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배수·사면 관리 실태 △기존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의 운영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남 사장은 점검 도중 "산지나 경사지

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로 인한 구조물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사전 점검과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풍수해로 인한 설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가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체계 가동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공사는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해 비상근무 등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 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조치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권고하고, 발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한자리에

농진청, 시설원예연구소서 핵심 기술 설명회 개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시설 스마트팜 핵심 성과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스마트팜은 온실 환경, 양액 등을 수집한 정보에 기반해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팜 연구자와 기업체,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이 그간 개발한 시설 스마트팜 핵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1부에서는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아라온실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의 현장 적

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은 내구성과 유직성 등이 뛰어난 피복 자재로, 일본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피복 자재의 현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환경제어시스템 업체마다 다른 감지기(센서), 구동기, 제어기, 운송 프로그램을 표준 체계(데이터코드)로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온실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재배 과정에서 나온 배액을 회수·살균·재공급해 물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는 회수한 배액을 열로 살균하는 장치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2부에서는 이들 기술이 구축된 온실로 이동해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각 기술의 작동 원리 등을 들은 후 종합 토의를 이어갔다. 이번 설명회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국산화 기술을 중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농진청> 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별 성능 검증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상용화와 농가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스마트팜 핵심 기자재와 운영 /정소민 기자



<사진=군산중앙신협>

군산중앙신협, 은파호수공원 신협정원 플로깅

군산중앙신협(서대근 이사장)은 지난 17일 은파호수공원(군산시 나운동 소재) 소재 신협 정원 인근에서 군산중앙신협 CU공유마켓 기부자 및 수혜자 20여명이 모여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일 플로깅은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미래세대에 기부하자' 주제로 신협 정원 일대를 걸으며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신협 정원은 23년 신협사회공헌재단과 군산지역 10개 신협이 힘을 모아 조성한 주민 휴게 공간이다. 은파호수공원 내 유휴지로 방치돼 있던 총합 인근 공터를 활용에 수국 정원, 습터 등의 공간을 마련했다. CU공유마켓은 군산중앙신협 복지사

전북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도와 함께 지난 18일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익산)에서 '2026년 초격차 투자 Connect'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과 자금과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개 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지정됐으며, 올해에는 5개 기업이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받으며,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1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날 행사는 신규 지정기업(5개사) 현안 수여를 시작으로 기업별 핵심기술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투자유치, 판로개척,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성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투자 및업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가 기업당 3회에서 최대 6회까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성장단계와 투자유치 준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사진=전북중기청> 장상만 전북지방청장은 "이번 행사가 기업과 투자기관이 서로의 성장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건전결산 전략회의' 열여

전북농협 '2026년 상반기 건전결산 추진 전략회의'가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전북 관내 92개 농축협 상임이사 및 전·상무 등 100여명 현황 분석, 건전 결산 위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연계 연체율은 국내외 경제 불안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농축협 대손충당금 증가, 손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상호금융 연체 감축 캠페인을 전개해 건전경영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건전 결산은 전북농협이 농업,농촌,농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농축협 경영환경이 대내외 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북농협 임직원의 저력을 모아 2026년 건전결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세대 아우르는 미술관 기획전 운영

내달 19일까지 도립미술관 소장품 공유... 시민들에 문화 체험 선사

정읍시립미술관이 내달 19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 '산, 들, 바람 그리고 이곳'과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버라이어티 베어 (Variety Bears)' 시즌 3를 동시에 열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선사한다.

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자연과 장소를 다룬 작품들을 엄선해 제2전시실에 차려냈다. 전북 출신 박민평, 송수남 작가를 비롯해 한운성, 지용출 등 예술가 17명이 참여해 평면과 입체 작품 26점을 내놓았다.

단순한 경관 재현을 넘어 장소, 기억, 지각이 교차하는 경험의 공간으로서 풍경을 바라보는 동시대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화면 속 자연의 물리적 요소들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거쳐 새롭게 해석돼 관람객에게 익숙한 풍경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Variety Bears)' 시즌 3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 친화형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전시물이다. 특히 영상, 소리, 공간 연출을 더한 몰입형 작품인 '행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람객에게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존재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준다.

제3전시실에는 전시와 연계한 교육 체험 공간을 별도로 조성했다. 아울러 미술관 입구와 1층 휴게 공간 곳곳에는 시원한 여름 풍경과 팝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진 촬영 구역을 꾸며 방문객이 특별한 계절의 감각을 느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도내 공립미술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소장품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이다. 매주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미술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서 공연

(제)군산문화관광재단의 2026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선정단체인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독일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베토벤 음악의 웅장함과 깊이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베토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서형민이 협연자로 참여한다.

서형민은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연주할 예정이다.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 활동과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티켓은 사전 예매 또는 공연 시작 20분 전부터 현장 발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전통시장서 즐기는 '이리와 포차축제' 열려

먹거리·공연·이벤트 마련 다채로움 추가 혜택도

익산에서 여름밤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이리와 포차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제4회 이리와 포차축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구시장상인회가 주최하고 남부시장상인회가 협력해 마련한 행사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6 전통시장 릴레이 장터바캉스'의 두 번째 행사로 진행된다.

전통시장만의 정겨운 분위기에 포장마차 감성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후라이드 치킨과 흥어 회무침, 소고기 스테이크, 곱창 등 다양한 포차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수 공연과 DJ쇼 등이 이틀간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축제와 함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행사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다리로움'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정판 마호가니 커피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릴레이 장터바캉스가 열리는 전통시장 4곳의 키링을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마호가니 쿠션을 증정

할 예정이다.

구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리와 포차축제가 구시장과 남부시장의 상생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통시장 릴레이 장터바캉스는 매일시장 야시장 페스티벌에 이어 이리와 포차축제, 중앙시장 청년물 상사포차 야시장(6월 26일~7월 25일), 서동시장



<사진=익산시>

별별야시장(7월 31일~8월 1일) 순으로 진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개막

완주문화관광재단은 국립현대미술관(MMCA) 미술은행과 협력, 202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다채로운 결, 열린 공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5일간 완주 공예오피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주 공예오피스튜디오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우수한 소장품 15점을 완주 지역에 유치해 수준 높은 동시대 미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공예를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2026 공예주간'과 연계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다채로운 결, 열린 공예'는 도자,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통해, 산업단지과 주거 지역이 공존하는 완주군만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공예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조명한다.

완주군은 산업과 일상, 노동의 환경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전시는 이러한 지역적 맥락에 주목해,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의 '물성(物性)'이 공예가의 섬세한 창작 과정을 거쳐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유희태 완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완주 공예오피스튜디오가 지역민과 산단 근로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거점으로 성장하고, 공예가 일상 속 문화예술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 기자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전북 고창군에서 관내 장애인 스포츠 가족들의 대축제인 '2026 고창군수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활기찬 열기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창군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8일 고창 스포츠타운 내 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영식 부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진식 고창군장애인골프협회장, 박현규 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한 군의원, 관내 여러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에는 관내 파크골프 동호인과 장애인 선수단, 경기 진행 요원 등 1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과 화합의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개인전과 혼성 4인조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가한 선수들은 매 홀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며 승패를 떠난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줬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히 하나로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김영식 고창군부군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체육 가족 여러분이 전국 최고 수준의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진=고창군>

친환경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서울 도심서 전북 알린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지역관광 안내나눔에서 열리는 로컬 미식 팝업스토어 '로컬트립 맛:잇다'에 참가해 전북 단독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스는 도내 우수 관광기업의 수도권 판로 개척과 함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서울 거점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 위해 운영된다.

팝업스토어에 참여하는 전북 대표 관광기업은 총 3개사로, 지난 17·18일에는 지역 전통 먹거리를 제조하는 △자유양조가

참가해 전통주 판매와 자체 시음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전북의 로컬 고우 스토리를 담은 감성 관광굿즈 및 콘텐츠를 전개하는 △더싱킹과 △위시아트랩이 부스 운영을 담당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안내나눔 행사는 전북 관광기업들이 수도권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지역 상생"을 목표로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실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기업의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결과 발표 : 2026년 7월 13일
수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

문의 사항 이메일 : jbn8800@daum.net
전화 : (063)282-9601 / 010-7454-1559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

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

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주시 덕진구 태진로77,5층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주)전북타임스신문

정읍시 전물군경미망인회 진도 안보 현장 견학

정읍시 전물군경미망인회(회장 김판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전라남도 진도군 일대 호국 유적지에서 회원 35명과 함께 안보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선조들이 남긴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회원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진도군 이충무공승전공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명량해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백성들의 애국심을 가슴에 새겼다.

이어 고려 시대 삼별초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운 호국 성지인 '고려항몽충혼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원들은 조국을 지키다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며 산화한 고려 군사와 삼별초 영령들을 향해 묵념하며 넋을 위로했다.

김판례 회장은 "이번 안보 현장과 전적지 순례는 회원들 사이의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 안보 정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아동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8일, 주거 위생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인 '드림청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은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청소 지원은 프로그램 협약 기관인 '드림청소'가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위해 전액 자원봉사 형태로 단독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날 드림청소 봉사자들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집 안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불필요한 물품을 수거하고, 찌든 때 제거와 내부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지원해 주신 드림청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일 영등공원 일원서 '다다영등 BEGIN ON' 개최

익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영등공원과 영등상권 일원에서 '2026 다다영등 비긴 온(BEGIN ON)' 행사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방문객의 발길을 상권으로 이끌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과 체험, 상권 연계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참여형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행사명인 비긴 온(BEGIN ON)은 '새로운 시작(비긴, BEGIN)'과 '활력을 켜다(온, ON)'를 결합한 이름이다. 행사는 '음악이 켜지는 순간, 영등이 다시 시작된다'를 주제로, 음악과 공연을 통해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감성 보컬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케이시(Kassy)가 출연해 대표곡을 선보인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비보이 퍼포먼스팀 '라스트리트 크루(Lastreet Crew)'가 역동적인 공연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나만의 키링 만들기, 다다영등 네 컷 사진관, 패션 헤나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영등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대표 콘텐츠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제44회 라면음악회' 개최

입장료 대신 라면 5봉지 또는 기부금...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는 나눔과 음악이 함께하는 제44회 라면음악회가 오는 20일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라면음악회는 2006년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나눔 문화행사다. 시민들이 입장료 대신 라면 5봉지 또는 소정의 기부금을 내고 공연을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라면드림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익산드림어린이합창단, 옆

드림앙상블 등이 참여해 클래식과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라면드림오케스트라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오케스트라로, 지난 20년간 꾸준한 연주 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왔다.

행사 당일 시민들이 기부한 라면과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연을 통해 모인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다.

송홍준 라면음악회 대표는 "음악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라면 음악회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며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내달 9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최대 3억원의 영농 창업 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 대상자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책정됐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금융 기관의 신용,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재촌 비농업인'이나, 현재 도시에 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공통으로 농업이나 귀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농촌 거주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을 제외한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뒤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7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이들이 성공적인 농업경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63-539-61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형 기본사회' 구현 박차

전문가 초청 특강... 정책 기획 역량 강화

익산시가 시정 전반에 기본사회 관점을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기본사회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기본사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립 과정에 기본사회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이자 전북연구원 연구전략실 선임연구원인 황영모 박사가 맡는다.

황 박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

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 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행정과 복지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다.

특강에서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사례를 통해 시민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본사회 개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익산형 기본사회' 구

현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과 시내 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통학돌봄 체계 구축 등 시민의 기본생활을 두텁게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6개 마을 협동조합이 참여를 신청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익산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 기대

군산시가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한다.

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 9월 대야면 수림로 일원에 각각 1,593㎡ 규모의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5동을 조성했으며, 지난 5년간 9명의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로, ICT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을 비롯해 전기보일러, 양액

재배 설비, CO₂ 공급기 등 첨단 스마트 농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작물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임대농장에는 청년 농업인 5개 팀이 입주해 가지, 오이, 딸기 등 원예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2026년 8월 계약이 종료되는 과제형 재배동 1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임차인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임대농장에서 영농계획 수립부터 재배·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스마트 농업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내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 학생농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스마트농업 창업에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스마트온실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창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냉방 장비 보급

가족 폐사 예방 '총력'

정읍시가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인한 가족 폐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축산농가에 환풍기와 냉방 장비 보급을 마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고온으로 인한 가족 폐사와 생산물 저하를 방지하고자 폭염 대응 시설 지원을 확대했다. 더위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사업을 끝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지원 품목은 축사 환풍기, 차광막, 냉방 장비 등이다.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시는 냉방 장비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물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름철 가족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했다.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피해 발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환기와 냉방 시설 관리, 충분한 물 공급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 가족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옹포블루베리축제' 20일 개막

할인 판매·프로그램 '풍성'

익산에서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블루베리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제5회 익산옹포블루베리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옹포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옹포블루베리공선회가 주관하고 익산시와 서익산농협이 후원한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옹포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축제는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햇빛루베리 할인 판매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운영된다.

특히 블루베리 할인 판매 부스에서는 옹포블루베리공선회 소속 80여 농가가 공동선별한 고품질 블루베리를 선보인다. 공선회원들은 축제 기간 열린 블루베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옹포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난타와 통기타 공연,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댄스파티와 즉석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익산 옹포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농협, 보훈 가족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1200만원 상당 기탁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0상자를 보훈 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마련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인수위, 첫 현장행정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위원장 전병훈)가 18일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실천을 위해 현장행정에 나섰다. 오늘까지 주요 사업지와 민생 현장 등 30여 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최정호 당선인이 강조한 '민선 9기 익산시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정이어야 하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실용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날 첫 일정으로 최정호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정년물과 중·매·서 전통시장(중앙·매일·서동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들과 지역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4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양묘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민선 9기 익산시정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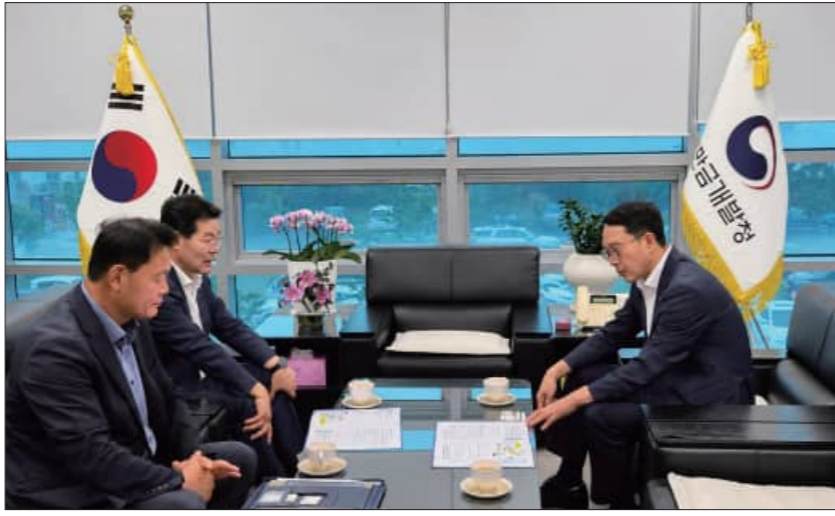
부안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

권익현 군수, 새만금 개발청장에 조성 계획 설명 및 주요 현안 건의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7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고 새만금 부안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부안권역 RE100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며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의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권역 주변 5개 시·군 가운데 부안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이며 청년층 유출과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7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부안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사진=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오랜 기간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산업·경제적 혜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성요 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검토 중인 만큼 부안의 의견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농공산업 거점 조성 박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콩애플"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실행계획 보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농공산업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조건부 선정에 따라 전문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거점지구 집적화 방안, 운영주체 및 거버넌스 체계, 기업유치 전략, 성과지표 설정 등 기존 계획의 보완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생산·가공 융합센터와 신성장 산업과 센터로 구분한 2-트랙 육성 전략을 도입해 원물 생산과 가공, 연구개발, 판로 개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단일 기업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개 앵커기업 체계를 마련해 (주)참고음과, 김제시농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조건부 선정에 따라 전문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됐다.

시는 이번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업유치 10개소, 매출액 568억원, 신규 고용 100명 이상 창출을 목표로 농공산업 거점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고창군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행정안전부 지정)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추진됐다.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봉사단체 관계자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재난 유형과 구호활동 체계, 재난구호 조직 및 역할,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자원 및 위기관리 리더십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꾸러졌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을 통해 재해구호 담당자와 민간봉사단체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지역 자원 연계 주거복지 사각지대 환경 개선

부안군은 지난 17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생활폐기물 장기 적치와 노후 전선 등으로 주거환경 및 안전 여건이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부안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안면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대상자 및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대상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보안면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 봉사단, 마을 주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폐기전과 낡은 전선, 싱크대 등 장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주거 공간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정과 복지기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사례관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복분자 농가 찾아 일손돕기... 영농 부담 덜어

고창군 산림면(면장 고현규)이 복분자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었다.

산림면 직원들은 17일과 12일 지역 농가를 방문해 복분자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들은 정성껏 복분자를 수확하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었다.

일손 지원을 받은 농가는 "복분자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져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산림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현규 산림면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녹두 디저트 기획전시 판매전

"고창의 역사 문화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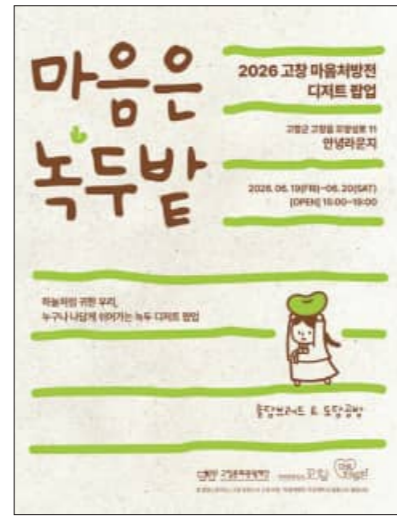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고창문화도시홍보관 '안녕 라운지(고창문화의전당 앞)'에서 녹두 디저트 판매 행사(마음은 녹두밭)를 진행한다.

'녹두가 건네는 따뜻한 마음'을 주제로 고창의 자연과 역사, 치유의 가치를 담은 디저트를 전시·판매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고창, 둘의 시간'과 '달숨: Sweet Pause'를 만날 수 있다. '고창, 둘의 시간'은 고창 고인돌과 고창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녹두 마들렌과 쿠키로 구성된 상품이다. '달숨: Sweet Pause'는 고창 녹두와 새싹보리를 활용한 수제 카라멜 제품이다.

방문객들은 녹두 디저트를 맛보며 고창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고, 먹거리를 매개로 한 치유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사진=고창군>



부안군 '군민의 신바람' 정책제안 접수

부안군은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군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민 정책제안을 접수한다.

'민선9기 군민의 신바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제안 접수는 새정부 출범을 맞아 군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바람(바람)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해 군민 중심의 군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은 부안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안군 누리집(홈페이지)의 '민선9기 군민의 신바람'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김제시는 18일, 여름철을 맞아 (사)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김제시 사회적기업이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김제 영광교회의 장소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관내 한국 장애인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시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2000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봉사에는 △(우)삼우산업개발 △(농)우(새)만금유기농꾸지뜨콩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김제시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한국장애인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특장차 연계 도로보수 추진

국도부 주관 공모 선정 피지컬 AI로봇 기술 적용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옛지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 로봇형 포트홀 보수 통합장비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트를 탐지부터 보수까지 인공지능(AI), 로봇, 특장차 기술을 결합해 도로 유지보수 작업을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28.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4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지역 특장차 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도로 유지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포트를 자동탐지·보수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선제적인 기획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이러한 사전 기획과 지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AI·로봇 기술

을 특장차 분야에 접목하는 실증형 사업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김제 백구특장차단지 입주 기업인 진우SMC를 중심으로 자동차용합 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된다.

개발 장비는 차량에 탑재된 다채널 인공지능 영상처리 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 포트홀을 탐지하고 손상 규모를 분석한 뒤, 로봇 장치가 청소, 택코트, 포설, 다짐 등 보수 공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이다. 특히, 옛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현장 도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포트를 규모에 따른 보수 물량 산출, 작업 경로 최적화, 원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최근 집중호우, 폭설, 도로 노후화 등으로 포트를 발생이 증가하면서 차량 파손, 교통사고, 민원 증가 등 도로 안전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보수 작업은 작업자의 도로 진입과 반복적인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안전

사고 위험과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장비를 실제 도로 환경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지자체 도로 유지관리 현장과 공공 인프라 관리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가 보유한 특장차 산업 기반과 연계해 AI·로봇 기술이 접목된 특수목적 모빌리티 분야로 산업 영역을 넓히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가 이어지는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김제시가 추진해 온 특장차 산업 고도화와 피지컬 AI 기반 신산업 육성 방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제시는 AI, 로봇, 특장차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김제를 첨단 특장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본격 운영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서 예약 신청

고창군이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을 오늘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심원면 두어1길 55-25)은 2018년 준공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지난해 8월 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군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군은 기존 민간위탁자가 설치·운영하던 글램핑 시설을 매입하고, 안전 점검과 시설 정비를 마치고 올여름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글램핑 시설은 총 9동 규모다. 이용 요금은 여름 성수기(7-8월) 기준으로 주말 15만5000원, 평일 14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약을 원하는 이용객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캠핑장 주변에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와 바지락 등을 현지에서 신선하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인근에 '갯벌체험학습장'과 '탐사르고창갯벌센터'가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과

생태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글램핑장 개장과 연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갯벌SEA네미'를 매주 토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선보인다. 탁 트인 고창갯벌을 무대로 한 야와 영화상영은 올여름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글램핑 시설 개장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고창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올여름 휴가는 아름다운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맛 좋은 고창의 대표 수산물도 즐기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의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조례 및 규칙안 152건 처리

부안군의의회가 제371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9대 의정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재미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민생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달려왔다.

특히 4년간 총 42회의 회기를 운영하

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2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연평균 160여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한빛원전 수명연장 및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의정을 적극 실현했다.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재해 위험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가 군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과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군의의회는 제9대 공식 회기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안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완주군 '청년 유토피아' 5년 로드맵 가동

청년정착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유입·성장·정착·참여 4대 전략 청년종합지원센터 허브 역할

완주군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해 '2026~2030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유토피아(Youth-topia) 완주'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견인할 '청년 정착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정책에 벗어나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유입-성장-정착-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완주-

로그인) △성장(완주-워크&업) △정착(완주-스테이) △참여(완주-링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은보당 캠프, 청년 체류형 레지던스 운영,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 행정인턴십 프로그램, 청년 주거 사다리 안심팩 지원, 청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취·창업, 주거 안정, 정책 참여까지 전 과정을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개소한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정책의 거점이자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 대상 발굴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연계·조정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정책이장단,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해 청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청년정책 영향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올해 첫 '찾아가는 왕진버스' 호응

주민 200여명 종합진료 지원 하반기 3개 권역 확대 운영

순창군이 18일 순창읍 장애인체육관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행사가 열린 이날 현장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진과 보건 전문 인력들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부터 양방 진료, 구강 검사, 검안 및 돌보기 맞춤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1인당 약 10만 5천 원 상당의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사진=순창군>

에서 바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일상에서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주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소양면 평리마을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현판식

완주군이 생명사랑 실천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7일 소양면 평리 마을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은 농촌 지역의 총동적인 음독 사고와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훈 완주군 부군수와 강남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생명사랑 실천을 위한 협약체계를 시작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및 현판 전달식, 생명지킴이 위촉식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라는 슬로건 아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행복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며 관내 50개 마을 1,584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소양면 평리 마을과 토정마을의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보관함 보급을 추진하며 안전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촘촘한 생명존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관내 농약판매업체 18개소를 '마을지킴 실천가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약의 유통 과정을 살피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자살 예방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일부터 이틀간 남원시장배 볼링대회 개최

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남원 스포츠킴장에서 '2026 남원시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원시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300여 명과 임원·관계자 50여 명 등 총 350여 명이 참가해 동·중·고 간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관내 선수 180여 명이 함께하는 지역 생활체육 대회로, 볼링 동호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볼링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볼링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실력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문화예술' 영유아 700명에 공연 선사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주관 '2026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17일과 18일 관내 영유아 700여 명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이를 동안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회당 35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대도시로 멀리 이동해야만 접할 수 있었던 수준 높은 어린이 맞춤형 공연을 지역 내 대표 문화 공간인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을 넓혔다. 덕분에 장거리 이동이 힘든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는 기회가 됐다.

공연은 이를 동안 각기 다른 매력의 두 가지 테마로 펼쳐져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17일에는 과학적 원리와 화려한 빛을 결합한 '사이언스 매직 레이저 퍼포먼스'가 무대에 올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어 18일에는 화려한 쇼와 담담함이 어우러진 참여형 공연인 '오감만족 속사탕 공연'을 진행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부모님과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보육 환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합동평가 9년 연속 전북 1위 '금자탑'

전북 14개 시군 중 종합 1위 정량지표 65개 전 항목 달성

남원시가 2026년(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북 1위의 성과를 한해도 놓치지 않았으며, 특히 올해는 65개의 정량지표를 100%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종합평

가로 국가 주요시책,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광역시·도를,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을 평가하며 복지, 환경, 안전, 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분야(65개 지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등 65개 모든 국정지표를 달성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또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한 정성평가 분야(8개 지표)에서 시부 1위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남원시가 펼친 정책들이 차별성과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부단체장 주재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지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수립하는 등, 평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 직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평가 결과로 남원시는 재정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학원비 지원' 공약 밀그림 그려

학부모 150여명 참여 간담회 월 10만원 바우처 지원안 제시

순창군이 민선 9기 핵심공약인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세부사업 설계에 앞서,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사업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군민이 깊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순창군은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자격증 취득 학원까지 폭넓게 인정해 1인당 월 10만



<사진=순창군>

원씩 정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저소득층과 다자녀(3자녀) 가구에 집중되던 혜택의 문턱을 낮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체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안을 다듬어갈 계획이다.

이어서 소통의 시간에서 최영일 군수

는 약 70분간 격식 없이 학부모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최 군수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며, 읍·면 지역의 학원 인프라 부족 문제나 기존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면밀히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기업 살아야 남원 산다"

산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열어 "투자·일자리 늘리는 도시 조성"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18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과 광치북합동화센터에서 노암산업단지 및 광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충모 당선인은 간담회에 앞서 남원

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미야행(한미화장품) 대표와 간담을 갖고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노암산업단지(25개 기업)와 광치농공단지 2 입주기업(17개 기업), 사매산업단지 입주기업(2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 수급 문제와 기업 지원 정책, 판로 확대,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양충모 당선인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남원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충모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과 각계각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민선9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아시아 윗칠 문화 유네스코 공동 등재 '앞장'

8개국 전문가 남원 현장 답사 공동등재 4차 협약 추진

남원시가 아시아 각국의 윗칠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 핵심 지자체로 동참하며 전통 윗칠·목공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남원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공예박물관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공동 주최로 개최된 '2026년 아시아 윗칠 교류 프로그램'에 국내 협력 지자체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의 윗칠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의 전승 현황을 공유하고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했다.

남원시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술

교류와 현장 답사를 긴밀하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18일에는 아시아 8개국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답사단 30여 명이 국내 대표 윗칠 목공예 생산 거점인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교류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답사단은 '남원시 윗칠공예관'을 찾아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윗칠목공예대전'의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며 남원공예의 정수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서울공예박물관, 원주시와 함께 아시아 윗칠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9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국제 공동 조사와 연구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연계 체류관광 강화

전북 협의회 참여 협력방안 논의 숙박·체험·쇼핑 할인혜택 제공

순창군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과 함께 전북 지역 내 참여 지자체들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며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순창발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북지역 협의회'에 참석해 전북 내 참여 지자체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 내 참여 지자체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

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도입한 플랫폼 사업이다.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방문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앞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가동 중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고운삼봉도서관, 22일부터 시범 운영

AI로봇·미디어아트 서비스 구축 보완 정비 후 내달 6일 정식 개관

완주군이 오는 22일부터 삼봉중앙공원 내에 조성한 '고운삼봉도서관'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 운영은 정식 개관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공간과 주요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도록 돕고, 시설물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연면적 2,96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 고운삼봉도서관은 총 1만 5,000여 권의 개관 장서를 보유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서관은 지상 1층 삼봉민원센터와

공부방, 주민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시설을 탄탄하게 갖췄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안내로봇과 디지털 큐레이션, 미디어아트 갤러리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과 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한다. 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한 보완 사항을 정비한 뒤 오는 7월 6일 월요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식 개관 이후에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정상 가동하고 공부방 야간 개방 등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지자체 혁신평가 '2위'

전국 82개 군 중 2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무주군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중 2위(우수기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37위)보다 무려 35계단을 오른 성과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 28개 혁신 우수기관에만 수여하는 기관 표창을 전북에서 유일하게 받는 등 1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에 안착한 무주군은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시각시대 해소,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국민 체감도 평가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열린 군수실'과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청년 및 청소년 간담회', '소셜 미디어(SNS)' 운영,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주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장실을 갖춘 '무주 군립요양병원' 개원과 행정 조직 내에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기본소득 시행 기반을 마련한 것, 3도 3군(전북 무주·

충북 영동·충남 금산) 공유차 협약을 체결해 지역 연계 관광상품을 활성화한 것, 3무(無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정책을 기반으로 무주반딧불축제에 개최해 지역 축제 최초로 ESG 경영 신화를 달성한 것,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것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혁신평가에 반영됐다.

'신혼부부 신축 아파트 특별 공급'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생애 첫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한 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은 '2026년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 청소년들, 최후신 군수에 당선증 전달

장수군 청소년 모의투표 운영

장수군은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와 장수YMCA가 주관한 '2026년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시한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최다 득표를 얻은 최후신 군수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부식에는 청소년 모의투표 투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장수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 '피스메이커' 소속 관내 중·고등학생 7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모의 투표에 직접 참여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후신 군수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소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당선증 교부 이후 이어진 대화 시간에서는 청소년 정책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최후신 군수는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 과정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무주, 건강한 노후 맞춤형 돌봄 강화

임실군, 거동 불편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27개 미용업소와 협약

임실군이 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전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일 대한미용협회 임실군지부 소속 관내 27개 미용업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상 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이나 중증 질환, 외상

등으로 외출이 전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기 재가 생활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동참한 27개소 미용업소 영업주들은 향후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커트, 염색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두발 위생 관리를 넘어, 미용사들의 정기적인 재가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파악, 정서적 지지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건강 관련 체험부스 마련

무주군은 걷기 운동을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안심무주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무주읍 무주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주민 등 4백여 명이 참가해 향로산로 공용화장실 인근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를 함께 걸었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를 따라 마련된 6개 지점에서 '스텝 투어' 미션을 완성하며 걷기 행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주민 김 모 씨(43세, 무주읍)는 "선선한 저녁 시간에

은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 치매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배우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도 갖게 돼서 좋았다"라며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서 알찬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안심무주 걷기' 출발과 도착 지였던 무주공원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무주군립요양병원, 전북 AI 디지털 배움터 등 3개 관계 기관이 운영하는 △치매 바로 알기 퀴즈, △정신건강 자가검진(QR) △건강 기초 검사, 이동 금연 클리닉, △올바른 손 씻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가 마련돼 행사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공무원 430명, 복분자 수확 일손 도와

무주군이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등 19개 실과 공무원 430명을 복분자 농가에 투입한다.

대상은 고령층, 영세농, 부녀농 등 영농인력 수급이 제한적이거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미배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204농가다.

공무원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안성면을 비롯한 설천, 적상, 부남면 지역 81농가에서 오전 9시부터 복분자 50톤을 수확했으며 25일까지는 8일간 총 520톤을 수확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복분자 수확 작업 종료 후에는 방문 지역 주민들과 만나 농업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분자 농사, 나아가 무주농업을 키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주민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야시장 개최

진안군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안고원시장 주차장에서 진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2026 우화야 야시장-우화야 학교가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주도형 축제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화야 학교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학교 콘셉트를 접목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행사장에는 △문화공연 8개팀, △먹거리 부스 11개, △판매 부스 11개, △체험 부스 8개 등 총 30여 개 부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음식과 수공예품,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진안군은 행사 구간 차량 통제, 안전요원 배치, 행사주최자 배상보험 가입 등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위생·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누리파크 여름 물놀이 본격 운영

오는 7월 1일부터 가족형 여름 관광명소 기대

장수군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수누리파크 여름 물놀이 행사'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장수누리파크 여름 물놀이 행사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장수군의 대표적인 여름철 가족 체험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발발놀이장을 비롯해 바

닥분수대, 어린이수영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 12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요 시설인 발발놀이장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되며 △1회차 오전 10시~11시 40분 △2회차 오후 1시~2시 40분 △3회차 오후 3시~4시 40분 등 총 3회차로 나눠 운영된다.

군은 이용객 집중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25

일부터 8월 9일까지는 방문객 편의와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누리파크 광장에 설치됐던 에어 풀장을 발발놀이장 인근 트램펄린 공간으로 이전해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회전당 이용 가능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가족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대는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여름꽃 배치

초여름 꽃정원으로 새 단장 때 이른 무더위 겨냥

사계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본격적인 초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여름꽃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연결된 붕어섬 생태공원의 여름철 경관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피해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량함과 아름다운 꽃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절 맞춤형 경관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꽃과 정원을 선보이며 전국적



인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다利亞와 산파체를 비롯해 부겐베리아, 리시안세스, 속근베나, 제라늄 등 30여 종의 다양한 화훼류가 식재돼 이국적이면서도 풍성

한 정원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계절의 색깔과 조화를 살린 식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한우 사양관리 전문기술 교육생 모집

생산성 향상농가 경쟁력 제고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한우 사양관리 전문기술 교육생을 내달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이번 교육은 한우 사육 농가의 전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7월 22일부터 8월 12일

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임실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한우산업의 이해 및 사양관리의 문제점 인식 △영양생리 △비육생리의 이해와 반식우 사양관리 △겨세우 비육기술 및 소의 관찰과 처치 등 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

장수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1·2차 방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매개충 활동이 증가하고 소나무류의 자연 쇠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선충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암지구와 계북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됐다.

군은 총사업비 6,100만 원을 투입해 소나무 63주에 대한 정밀 방제를 실시했다. 1차 사업에서는 28,12ha를 대상으로 단독벌채·파쇄 3주, 고사목 벌채 및 그물망 처리 4주, 예방나무주사 236년, 표준지 조사 9,298주를 추진하

며 재선충병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전 진행된 2차 사업에서는 0.8ha를 대상으로 단독벌채·파쇄 7주와 고사목 벌채 및 그물망 처리 49주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상반기에 발견된 감염목과 고사목을 모두 제거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수군은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도민체전 문화공연 지원 협약 체결

군-진안군체육회-농협 진안군지부 성공체전 위한 협력 강화

진안군은 18일 군수실에서 진안군체육회, NH농협 진안군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6 전북도민체전 성공개회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정봉은 진안군체육회장, 한정호 NH농협 진안군지부장이 참석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사회 화합,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 진안군지부는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비는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문화공연 사업 추진 및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정호 NH농협 진안군지부장은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가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연사업 지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진흥을 위한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구이면 대원사,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완주 구이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주지 대진스님)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원사 대진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원사는 지난 1월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수익금 5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대진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 뜻깊다”며 “소중한 정성이 담긴 성금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호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대원사와 신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산동면 지사협, 직접 수확한 감자 나눔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길재, 최기성)는 18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직접 심은 하지감자 10kg 100여 상자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마을 주민이 무상으로 임대해준 유휴농지 약 400여 평을 활용하여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을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주민 우선의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하지감자 제공 대상자 방문 및 감자 전달을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토대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각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대한한돈협회 김제시지부, 한돈 860kg 기탁

**한돈 675만원 상당 전달
해마다 이어온 나눔
지역사회 버팀목 역할 톡톡**

김제시는 18일 대한한돈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김락기)가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675만 원 상당의 한돈 2kg 총 430팩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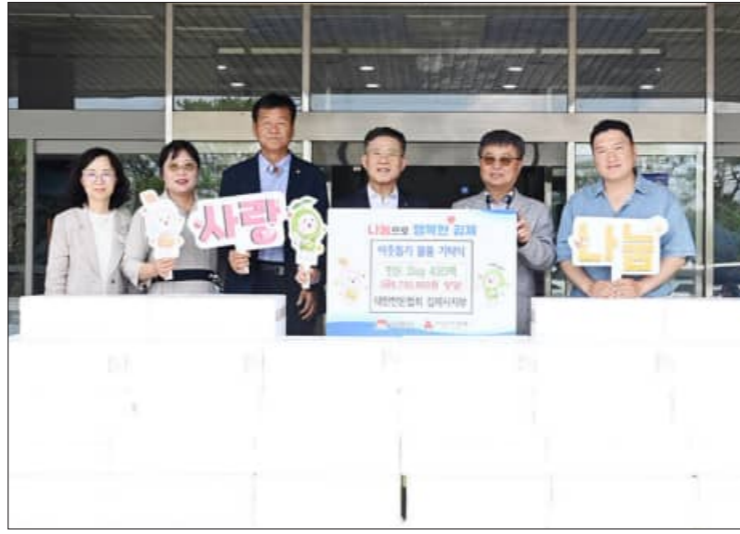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김제시지부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고기 기부

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협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수백 팩의 한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베풀어 온 온정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김제시지부 지부장은 “사료비 상승 등 축산 농가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우리 돼지 한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이어온 나



눔의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지역사회와 늘 상생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부안읍 이장단협의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지난 16일 부안읍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용화)와 회원들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2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이장단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안읍 이장단협의회는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에도 동참했다.

김용화 회장은 “부안읍 이장단이 지역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군산 파란나무유치원 원생들, 정성껏 모은 성금 기탁

6년째 원생들과 나눔 실천

파란나무유치원(원장 박민정)은 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모은 이웃돕기성금 68만 원을 18일 수송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파란나무유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원생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박민정 원장은 “원생들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

을 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돕기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송동장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가치를 아이들이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 연자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폭염 대비 생수나눔

정읍시 새마을지도자 연자동협의회가 여름철 폭염과 해충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수 2000병을 무료로 나누고 취약지역 방역 활동에 나섰다.

연자동협의회는 매년 무더위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 무료 생수 공급처는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잔다리목 사거리의 삼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옆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눔은 협의회 소속 회원인 전주진 신홍LPG 주유소 대표가 500ml 생수 2000병을 전량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물 나눔과 더불어 해충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협의회는 여름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모기 등 위생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소독을 진행해 지역 보건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우유 지원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도형스님)은 지난 17일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은빛마을 아파트 입주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과 건강증진을 위한 '2026년 어르신 우유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동진강남농축협(조합장 심재원), 고창군 낙우회(회장 이재은)에서 참여해 온정을 보냈다. 우유는 향후 10주간 주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배부되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빛복지관 경로식당의 점심 식사 시간에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도형스님은 “앞으로도 주거인프라연계돌봄서비스와 다양한 지역 자원을 융합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인화동 주민들, 행복비누에 이웃사랑 담았다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체험과 나눔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화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8일 LH행복마을작은도서관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인화로 빛나는 행복비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체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1회차 활동에는 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민들이 정성껏 만든 천연비누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체험 활동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一事一言〉



혈세로 지은 파크골프장, 왜 특정 동호회의 놀이터가 됐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공공(公共)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모든 시설은 오직 주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완주군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태는 공공의 자산이 어떻게 특정 집단의 썸짓돈과 놀이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민낯이다. '군민 건강과 복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은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정치, 그리고 이를 틈타 공공재를 사유화한 특정 동호회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빛어낸 명백한 행정 참사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체육 복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표심을 의식한 선출직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역 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특정 시니어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계획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행정'을 남발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준공 이후의 방치였다. 행정기관은 관리의 편의성과 정치적 관계 유지를 핑계로 몇몇 동호회에 운영권을 통째로 넘겨버렸다. 철저한 통제와 투명한 공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단체에 '특혜성 묵인'을 해준 셈이다. 행정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빗장을 열 어주니,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의 영토로

전락하는 폐단은 필연적 결과였다. 운영권을 손에 쥔 특정 동호회의 행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서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하며 일반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별했다. 심지어 비회원들에게 이용료 명목의 비용을 직접 징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군민 혈세로 지은 시설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적 단체가 회원과 비회원을 가르고 돈을 걷는 행위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기만이다.

여기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된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단어가 인접한 나라 땅까지 무단으로 점용하며 세를 불려왔다는 의혹은, 이들이 공공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겠지만, 이러한 의혹이 대낮에 불거질 때까지 행정기관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이는 완주군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부 동호인들은 자신들이 잔디를 깎고 시설을 정비했기 때문에 독점적 우선권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본말이 전도된 착각이다. 공공의 재산인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누리는 특혜를 받았다면, 자발적 봉사와 관리는 당연한 의무이자 보답이어야 했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행한 사적 관리를 무기로 공공재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관리하는 자가 오

히려 주민의 정당한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며, 그 단체는 시설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오늘의 파크골프장 파행은 동호회의 탐욕과 행정의 무능이 결탁한 결과다. 시설을 만들 때는 주민 복지를 외쳤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표심 관리를 위해 기득권의 횡포를 방치한 행정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군민의 재산이 특정 집단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동안, 지자체는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했다.

이제 적당한 타협이나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단 1초도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를 통해 비회원 비용 징수의 위법성과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의 실체를 낱알이 밝혀내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클럽에 내어준 기득권적 운영권을 즉시 회수하고, 투명한 온라인 예약제와 공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주민 복지를 내세워 만든 시설이 일부의 기득권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특혜이며 반칙이다. 사유화된 골프장을 하루빨리 군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기득권의 놀이터로 전락한 파크골프장을 청산하는 것은 완주군 행정이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설

지지율 역전, 승리의 취기가 아닌 민심의 탄핵(彈劾)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폭락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은 단순한 여론의 출렁임이 아니다. 이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집권 세력을 향한 국민의 마지막 통첩이자, 지난 지방선거 승리의 단풍에 취해 민생을 내팽개친 대가로 받아 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한때 철옹성 같던 콘크리트 지지층과 전통적 텃밭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정권의 명운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민심이 이토록 빠르게 돌아선 일차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무능과 독단에 있다. 특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당내 이견을 묵살하는 독선적 당 운영과 거친 언사로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해 왔다.

거대 여당의 권력에 취해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당권 강화와 정적 처내기에만 몰두하는 지도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지지율 역전은 필연적인 결과다.

집권 초반의 지지율은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국민이 빌려준 한시적인 인내천(因乃天)이다. 역대 모든 실패한 정권의 비극은 이 지지율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에서 비롯됐다. 선거 승리가 곧 모든 실책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양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몰아붙인 결과가 어땠는지 민주당은 벌써 잊었던 말인가.

지금 민심이 켜 든 불은 노란 신호등이 아니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는 적색경보(赤色警報)다. 정치는 선거 승리라는 권력 쟁취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무한 책임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유체이탈식 변명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실론 수습이 아니라,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무능한 당 지도부의 전면 해산이다. 민심의 경고음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편임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투고

청소년 비행 예방, 관심이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청소년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인해 흡연, 음주, 무단가출, 절도 등 비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심야 배회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여기기도 하지만, 반복 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처벌보다 관심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평소 자녀의 교우관계와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만으

로도 비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위험한 유흥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역시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업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선도 활동, 취약지역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 예방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을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청소년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혜인

오늘의시

국밥 / 이재무

매번 고인께는
면목 없고 죄스러운 말이지만
장례식장에서 먹는
국밥이 제일 맛이 좋더라

시뻘건 국물에 만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괜스레 먼구스러워 슬쩍
고인의 영정 사진을 훑쳐보면
고인은 너그럽고 인자하게 웃고 있더라

늦은 밤 국밥 한 그릇
비우고 식장을 나서면
고인은 벌써 별명으로 떠서
밤길 어둠을 살갑게 끌어주더라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중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학사'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림,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등이 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 작품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순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대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전북의 이야기”

https:// 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심덕섭 고창군정 1기, 되돌아본 변화와 성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단없는 고창발전”을 슬로건으로 53.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심덕섭 군정 1기(2022년 7월~2026년 6월)를 마무리 하며, 기업유치와 해안관광개발, 돈버는 농업 등 고창군의 시그니처 사업들을 정리하고, 진화하는 2기의 정책방향성을 전망해 봤다.

(편집자주)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대형 축제 흥행

자해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4.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성사 등 실질소득 향상=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가 실현돼 마침내 첫 출하가 이뤄졌다. 명품수박은 1덩이에 500만원의 경매신기록을 시작으로, 고창군 전체 수박의 도매시세도 끌어올리며 지역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줬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올해 전국 최대인 300여명까지 늘었고,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사를 준공하면서 지역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했다. 또한 농업보조사업 서류간소화와 재해보험료 지원, 최저가격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시행중이다.

5.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등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는 농림부 공모선정과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등으로 저온저장고와 절임가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 순항중이다. 고창군농업인회관이 건립되었고, 농촌협약 14개소 대상 사업과 이와연계된 30개소 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북부권인 흥덕면과 성내면에선 300억원을 투입해 흥덕체육관 건립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6.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청년주거복지 정책=총사업비 1777억원을 투입해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공개된 조감도에에선 명쾌한 동선계

획과 공간구성, 도시활력 거점으로서의 상징성이 표현되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210세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0세대, 청년특화임대주택 40세대 등 총 450세대의 청년주거주택을 짓고 있다.

7.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등 체감형 민생경제정책 흥행=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을 통해 민생회복과 지역활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높이고,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해 만단위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착한가격업소도 54곳으로 확대됐고,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8.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및 보훈회관 신축·독립운동가 추가서훈=도시 한 중심에 고창출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고,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이전·개관하면서 혁명 성지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보훈단체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이 개관하고, 3.1절·광복절·순국선열의날 등을 계기로 총 14명의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서훈되며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116명에 이르고 있다.

9. 어르신 보건의료 3대 정책 등 촘촘한 복지=마을 주치의사제로 고창군 전체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했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99%에 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



산장려금 확대, 산후조리비지원, 출산·육아용품전문 판매점 운영 등 아이나눔 좋은 고창을 만들고 있다.

10. 고창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고창을 사랑하는 인연의 끈은 고창사랑기부로 이어져 고창에 20억원(4년누적)을 기탁했고, 사 이비고창군민, 고창마켓 농특산물 구입 등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70년 이상 고창군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창 사랑을 실천해 오신 551명에게 뿌리고 창인 증서가 수여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

공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더욱 진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고창 대도약을 이끄는 선봉에 서겠다”며 “농어민이 편안한 부자농어촌, 첨단에너지 순환 경제도시, 군민 모두가 밝고 행복한 복지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관광 2천만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 고창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1.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 및 알짜 기업유치=삼성전자가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착수 15년여 만의 국내 재계서열 1위 대기업 분량의 성공신화를 쓰게 됐다. 이외에도 전력반도체 웨이퍼 소재 등을 생산하는 지텍을 비롯해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에스비푸드, 에너지저장장치 소재 기업인 손오공머티리얼즈 등 국내 다수의 기업의 투자유치를 심사시켰다.

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선포하고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는 관광도시를 만들었다. 모양성제를 군이 직접 주관하면서 축제 콘텐츠를 강화했고, 꽃정원, 전통예술체험마을, 고창그린마루 등과 연계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렸다.

3. 용평리조트 투자유치 등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국내최대 스키장을 운영 하는 용평리조트가 3500억원 정도를 투자해 대형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이 올 가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중견기업 4곳이 3000억원을 투